

 해양수산부		<b>보 도 자 료</b>		 
		배포 일시	2021. 8. 5.(목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	
담당 부서	해양영토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과장 김완수, 사무관 정연주, 주무관 이에진</li><li>• ☎ (044) 200-5350, 5353, 5354</li></ul>	
보 도 일 시		2021년 8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실시간 독도,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!

### -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제공, 여객터미널 등에서 미리 기상상황 파악 가능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8월 6일(금)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\*을 통해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.

\* 독도종합정보시스템([www.dokdo.re.kr](http://www.dokdo.re.kr)) : 해양수산부(한국해양과학기술원)가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 누리집으로, 독도의 과학·역사·일반 정보 등 제공(2008~)

그동안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영상 등으로 미리 볼 수 없었기 때문에, 독도 방문객들이 울릉도에서부터 장시간 항해(87.4km, 약 90분 소요)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주변을 선회하거나, 입도하더라도 약 40분의 짧은 체류시간만 주어져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눈에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독도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도 및 서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으며, 올해 7월까지 설비보완 및 네트워크 연결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다.

독도 실시간 영상은 독도종합정보시스템([www.dokdo.re.kr](http://www.dokdo.re.kr))과 울릉군 누리집(<http://ulleung.go.kr>)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동도와 서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, 여객터미널 등에서 영상을 통해 미리 현지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입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고, 동도 선착장의 여객선 접안 상황과 방문객의 입도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방문객 외에, 일반 국민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도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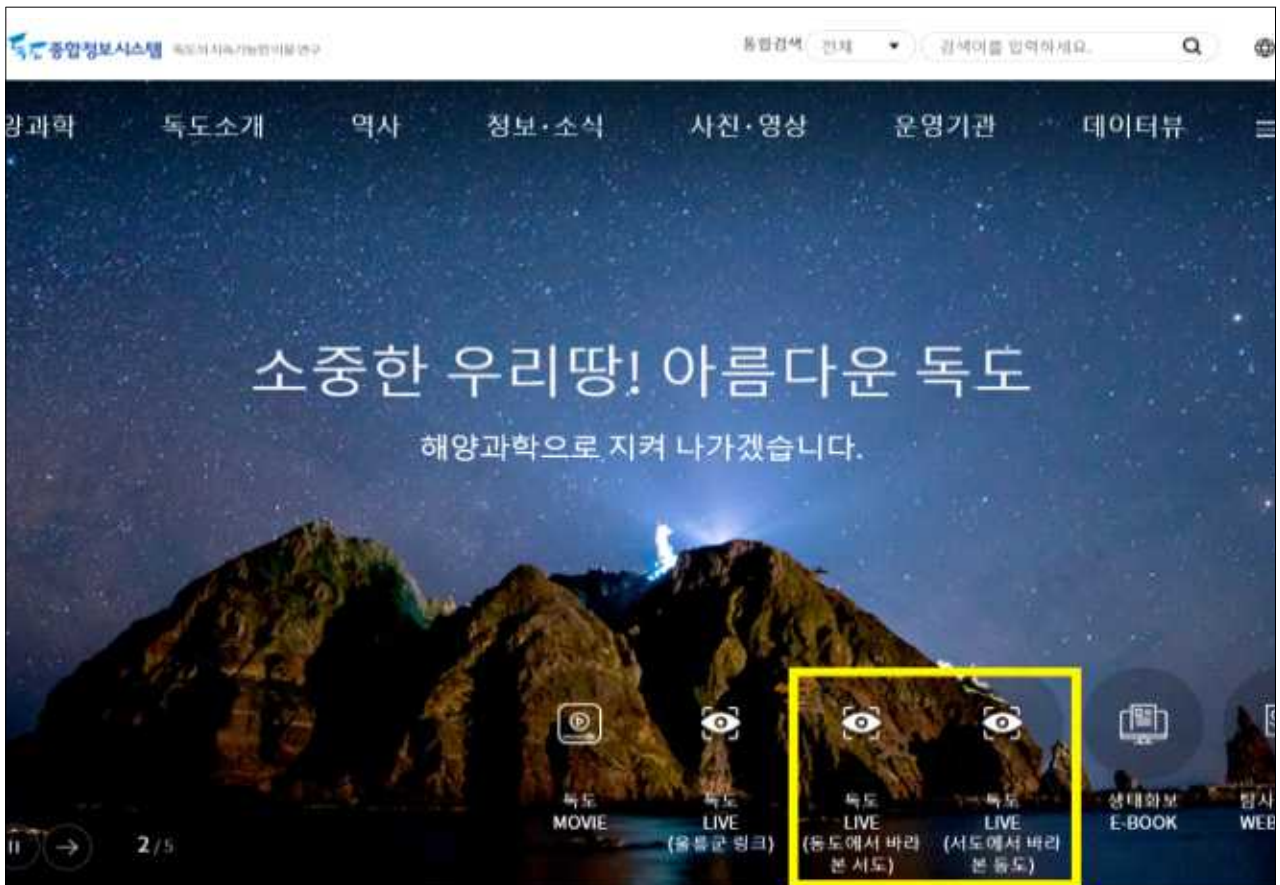
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“독도의 실시간 영상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, 관광자원으로서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

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 
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,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

## 참 고

##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영상시스템 제공메뉴



우측하단 독도LIVE 메뉴(동도에서 바라본 서도,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)



클릭시 화면(동도에서 바라본 서도)



클릭시 화면(서도에서 바라본 동도)